

2007년 제1차 한·이란 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

2007. 7

통 계 청
[한·이란 통계협력회의 대표단]

목 차

I. 회의 개요

| | |
|---------------------|---|
| 1. 회의 목적 | 1 |
| 2. 회의 기간 및 장소 | 1 |
| 3. 대표단 구성 | 1 |
| 4. 회의 주제 | 1 |
| 5. 주요 일정 | 2 |

II. 주요토의내용

| | |
|--|----|
| 1. 이란 통계센타장과의 주요환담내용 | 4 |
| 2. 이란의 통계제도 및 조직 | 4 |
| 3. PGG(PDA, GPS, GIS)를 이용한 통계조사 사례 | 11 |
| 4. 통계 연구 및 교육센타(SRTC) 현황 | 13 |
| 5. 양해각서체결 | 17 |

III. 주요 시사점

19

[참고자료]

| | |
|--------------------------|----|
| 1. 이란 통계제도관련 질의서 | 20 |
| 2. 이란측 회의자료(PGG관련) | 21 |
| 3. 이란 통계법 등 참고자료 | 22 |
| 4. 양해각서사본 | 50 |
| 5. 이란관련 사전준비자료 | 52 |
| 6. 명함, 사진 등 잡동사니 | 52 |

I. 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 우리 청과 이란 통계청 상호간 최신 통계기법의 상호 전수·습득, 각종 통계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및 국가통계 발전 도모
 - ※ 2006년 제2차 아·태통계포럼 참석차 방한한 이란 통계센타장의 제안으로 양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음
- 양국의 국가통계제도와 통계법령, PDA 등 IT를 이용한 조사현황, 통계교육 및 연구 현황 등에 대한 상호 소개 및 집중적인 토의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양국간의 통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에 기여

2. 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7. 7. 1(일) ~ 7. 3(화)
- 장 소 : 이란 테에란(통계청, 통계교육연구센타)

3. 대표단 구성

- 단 장 : 김대유(통계청장)
- 단 원 : 김진규(정책홍보관리관), 김광섭(통계정책과장),
안정임(국제통계협력과장), 조환석(청장실)

4. 회의 주제

- 이란의 통계제도 및 조직에 대한 일반현황
- PGG(PDA, GPS, GIS)를 이용한 통계조사 활용사례

- 통계 연구·교육센터(Statistic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운영 현황
- 한·이란 양해각서(MOU) 체결

5. 주요 일정

- 7.1(일) : 이란 테헤란 도착, 이란 통계센터 방문 및 환담
 - ※ 제2차 OECD 포럼(터키, 이스탄불, 6.26~6.30) 참석후 이어서 제1회 한·이란 양자통계협력회의를 개최
- 7.2(월) : 이란 통계센터(도서실, 전산실), 통계 연구·교육센터 (SRTC) 방문 및 회의
 - PGG(PDA, GPS, GIS)를 이용한 통계조사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SRTC의 현황 및 주요기능에 대한 소개
 - ※ 여수 국제박람회 유치 활동도 병행
- 7.3(화) : 양해각서 체결, 한국 출발

◇ 여수박람회 유치관련 사항 ◇

- 이란 세계박람회공사를 방문하여 여수국제박람회 유치활동을 수행
- 일시 및 참석자
 - 일시 : 2007.7.2(월) 17:00~17:30
 - 참석자 : 이란 세계박람회공사 이사장(S. Ghavamshahidi), 통계청장 주이란 한국대사(임홍재), 코트라 테헤란 무역관장(배창현)

◇ 세 부 일 정 ◇

| 일 시 | | 내 용 | 기 타 |
|--------|---------------|---------------------------|------------------------|
| 7.1(일) | 02:35 | 이란 도착* | THR 공항 |
| | 14:00 ~ 15:00 | 방문 환영식 | 이란 통계센터(SCI) |
| | 20:00 ~ 22:00 | 만찬 | 이란 통계센터장 주관 |
| 7.2(월) | 09:00 ~ 11:00 | PGG를 이용한 통계조사 관련 회의 | 이란 통계센터(SCI) |
| | 11:00 ~ 12:00 | 도서관 및 전산실 방문 | 이란 통계센터(SCI) |
| | 12:00 ~ 14:00 | 점심 | SRTC 센터장 주관 |
| | 14:00 ~ 16:00 | 센터현황 및 운영관련 회의 | 이란 통계 연구 및 교육 센터(SRTC) |
| | 16:00 ~ 18:00 | Handicraft 센터방문 | |
| | 17:00 ~ 17:30 | 여수국제박람회 유치활동 | 통계청장 |
| | 19:30 ~ 21:00 | 만찬 | 이란주재 한국대사 주관 |
| 7.3(화) | 09:00 ~ 12:30 | 박물관 및 유적지 방문 | 카펫박물관, 왕궁 |
| | 12:30 ~ 14:00 | 점심 | 한국 통계청장 주관 |
| | 14:00 ~ 15:00 | 양해각서(MOU) 체결** | 이란 통계센터(SCI) |
| | 15:00 ~ 16:00 | 체크아웃 및 연수생 Guest-house 방문 | |
| | 21:15 ~ 23:15 | 이란 → 두바이 | IKA 공항 |
| | 03:00 ~ 16:30 | 두바이 → 인천공항 | KE5952편 |

* 이란숙박호텔 : Lalhe 호텔(주소: Dr. Fatemi Ave. Tehran, 98-21-8896-5021)
Lalhe는 이란어로 톨립을 의미

** MOU 체결상황을 이란 국영 IRIB에서 녹화하였으며, 체결식후 양국 대표들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

II. 주요 토의내용

1. 이란 통계센타장과의 주요환담내용

- 이란에서는 IT와 통계를 접목하여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요청한다면 함께 협력하겠음
- 한국에서는 IT가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음
 - 한국에서는 인구주택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를 도입하는 등 IT를 이용한 통계조사를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음
- 이란에서는 이런 말이 있음
 - “뛰어난 성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바로 경험이라고 답하였다고함”.
 - 양국간의 통계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공유한다면 양국 통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때 박성현 교수가 발표한 통계품질에 관한 논문이 인상깊었는데 통계청에서 박교수와 통계품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감사하겠음
 - 올해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2. 이란의 통계제도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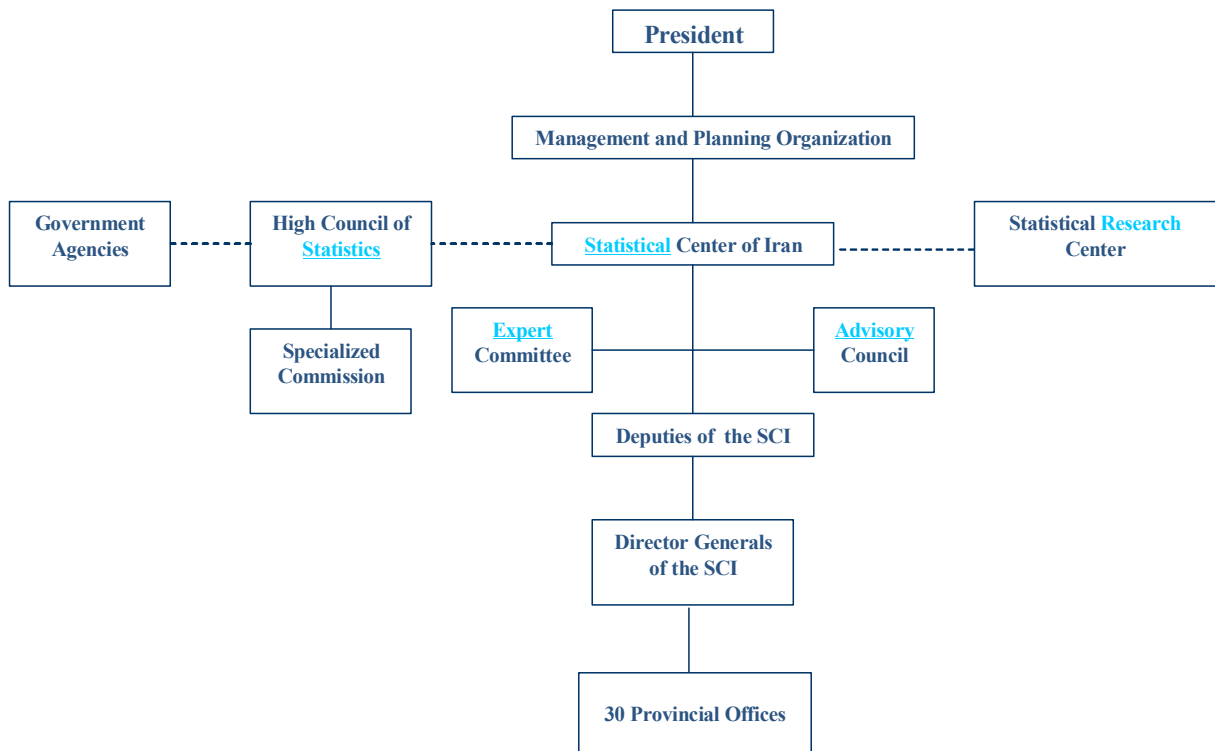
□ 개요

- 최근의 이란 통계법은 1975년도에 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이란 통계시스템(SSSI: Statistical System of Iran)은 이란 통계청 (SCI: Statistical Center of Iran)이 주도하는 집중형임

- 이란 통계청은 관리계획처(MPO: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장은 부통령)하에 소속되어 있어, 대통령은 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통계시스템(NSS: National Statistical System)을 감독
- 통계법에 의하면 이란 통계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 Organizational Chart of the NSS >



□ 이란통계청(SCI)

- 이란통계시스템에서는 이란통계청은 최고통계위원회(HCS: High Council of Statistics)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 부처와 관련을 맺음
- 이란통계청의 장은 관리계획처(MPO)의 장(부통령)에 의해 지명되며, 대통령이 수락하는 경우 SCI의 장으로 임명됨(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 SCI의 주요기능

- 인구, 경제, 사회부문 센서스 및 표본조사의 실시 및 배포
-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공
- 각 부처 통계조직, 협회 등 정부관련기관, 국영기업체, 가능하면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 통계자료의 생산 및 배포와 관련한 기준, 방법, 규정 마련
- 국가통계 및 SCI 통계작성활동의 품질향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구활동의 수행
- 공공, 민간부문 및 행정자료들로부터 입수된 통계자료의 취합

□ 통계법 등 관련규정

- 통계생산과 관련된 법규정 사항
 - 각 부처는 통계작성시 통계청으로부터 작성승인을 받아야하며, 결과공표시 사전에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야함
 - 10년주기의 인구·주택 센서스의 실시는 법적의무이며,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은 센서스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통계청에 지원하여야함
 -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란국민들은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정 혹은 국세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각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 통계조사시 통계청에서 정한 개념,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함

○ 통계청과 각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

- 각 부처가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요구할 경우 제공의무 있음
-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은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자료 (any type of data)라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통계청에서 승인된 통계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용될 수 있고 국가통계DB에 수록될 수 있음
- 통계청은 등록자료에 기반한 통계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 협회, 국영기업 등은 통계청에 협조 의무

□ 최고통계위원회(HCS)

- 최고통계위원회는 10개 부처와 중앙은행의 deputy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계획처의 장이 의장이 되며 이란통계청장이 간사(secretary)
- HCS(2개월에 1회 회의개최)의 주요기능은,
 - 국가통계시스템의 중단기 계획에 대한 연구
 - 통계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 통계정책과 통계우선순위에 따른 국가통계발전계획에 대한 연구
 - HCS의 결정사항은 각 부처가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 이란통계청내에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는 통계전문가, 교수(경제, 인구, 정보통신부문)들로 구성
- 위원회의 역할 : 모든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개선을 위한 조언, 통계청장의 요구에 의한 검토의견의 제시 등

□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 전문가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연구를 위해 이란통계청내의 서로 다른 부서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새롭거나 유용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청장은 이를 관련부서에 권고

□ 통계연구센터(SRC: Statistical Research Center)

- 통계청에 소속되어있으며 국가통계의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수행
 - 국가통계에 관한 워크샵 및 단기훈련과정 운영
 - 국가통계에 대한 연구수행

□ 통계시스템에 있어서의 최근의 문제들

- 통계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인 통계발전계획, 예를 들면 통계발전을 위한 국가전략(NSDS: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추진에 상당한 애로
- 통계적 문맹(statistical literacy) 및 문화
 - 일부 응답자의 경우 통계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해 통계조사에 비협조적임
 - 통계에 근거한 정책집행이 정착되지 않아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고 부족함
- 정부조직확대에 대한 규제때문에 통계조사를 민간부문에 이양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의 비밀보호 및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은 국가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
- 이란의 대학교에서는 국가통계를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에 들어온 이후에 공식통계에 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란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국민계정, 물가지수와 같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의하면 그러한 통계는 이란 통계청의 역할임
- 각 부처의 통계전문인력의 부족으로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MDG의 48개 지표중에 이란에 적용가능한 지표는 36개이며, 이중에 20개에 이르는 지표가 통계청에 의해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 통계생산시에 등록자료(행정자료)의 이용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통계조사에 지나치게 의존

□ 통계발전을 위한 통계전략(NSDS) 작성을 위한 노력

- 통계청에서는 NSDS의 수립을 위해 9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 9개의 워킹그룹 : 정보기술(IT), 통계자료생산, 통계시스템, 인력확충, 통계연구, 통계품질, 통계기준, 통계적 문맹 및 문화, 등록자료의 활용
- 향후 추진사항 : 실행계획의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 주요작성통계 >

◇ 인구·주택 센서스

- 1956년부터 10년주기로 실시, 2006년에 6차 조사 실시(9만명의 조사원, 4천만 US달러의 예산 투입)
- 인구증가율이 66년 2.7%에서 76년 약 4.0%까지 상승(난민유입)

◇ 제조업 사업체 센서스

- 1963년에 최초 실시되었으며, 통계청에서는 1972년부터 작성
- 1987년까지는 10인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매년 센서스를 실시했으나, 그 이후 약간의 변경을 거쳐 1994년부터는 2단계로 센서스를 실시(94년에는 1단계로 전체 모집단 프레임에 대한 조사, 95년에는 2단계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실시)
- 현재 약 40만개의 제조업 사업체가 있으며, 10인 이상은 15,000개
- 산업분류는 세분류단위까지 작성

◇ 농업, 축산업 및 기타 농업 센서스

- 농업통계는 196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센서스는 1973년에 최초 실시
- 1988년에 실시된 2차 센서스에서는 농촌뿐만아니라 도시도 포함
- 3차 센서서는 1993년에 실시

◇ 도시 및 농촌가구에 대한 지출 및 소득 통계

- 지출통계는 1960년대에 시작했으며, 소득통계는 1974년에 최초 실시

◇ 고용통계

- 1994년부터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매년 실시되다가 2005년부터는 분기마다 실시

◇ 건설산업통계

- 1964년부터 중앙은행에서 작성, 1972년부터 통계청에서 작성(격년제)

◇ 국민계정 및 지역계정의 작성준비(Preparation) 및 집계(Compilation)

◇ 물가통계의 작성준비(Preparation)

- CPI는 1974년부터 실시, 1982년부터는 지역단위로 작성
- PPI(제조업대상)는 1996년부터 매월 작성

3. PGG(PDA, GPS, GIS)를 이용한 통계조사 사례

- 이란 통계센타에서는 통계조사에서의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과정에 IT를 적용하는 것을 추진중
 - 특히, PDA, GPS, GIS를 이용한 통계조사를 최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평가를 통해 이같은 방식을 확대·적용할 예정임
 - 이러한 계획의 주 목적은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제고에도 있음. 또한 각종 서류작업의 감소도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임
 - 또한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처를 충실히 방문하여 실제로 조사한 것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수행

□ PGG를 이용한 조사실시를 위한 준비작업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 PDA 환경에 적합한 GIS 프로그램 검토 및 최적화
- 프로그램에 적합한 질문서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직원 교육을 위한 워크샵실시(3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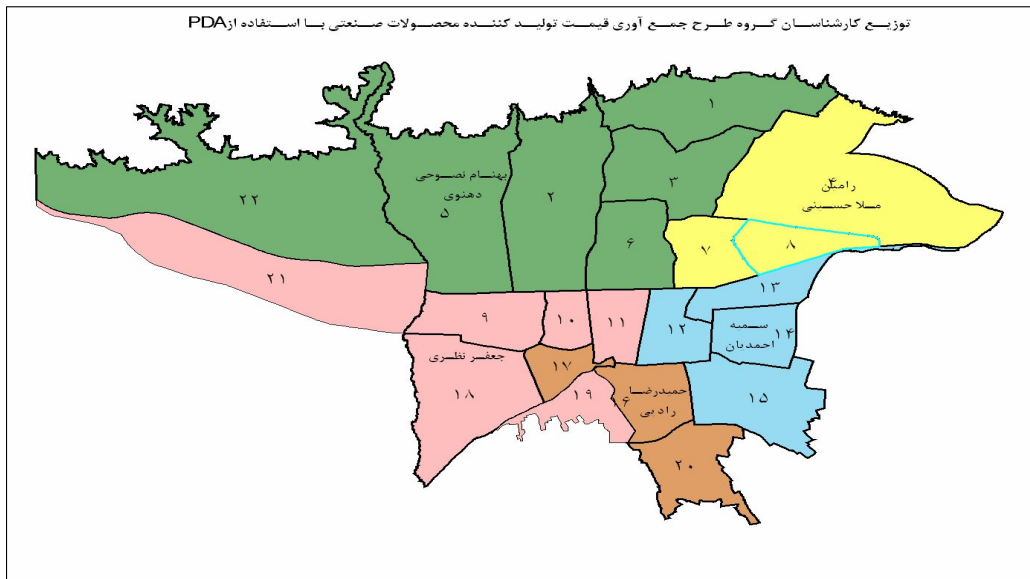
※ 주요교육내용 : 조사개요, 기기작동방법, S/W 교육, GPS 교육, 현장교육(1일간), 질의응답, 테스트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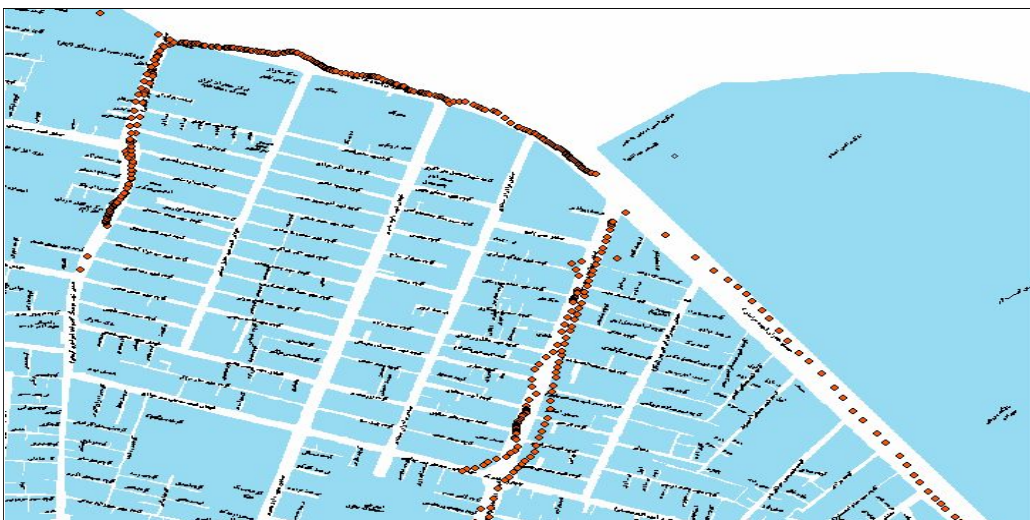
- 적용된 조사 : 생산자물가조사(제조업)
- 질문내용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a. 사업체나 공장 등 조사대상처의 지리적 주소
- b. 조사대상처에 대한 기본적 사항
- c. 조사직원의 인적사항
- d. 대상품목의 규격 및 가격(명칭, 분류코드, 가격, 가격변동사유 등)

○ 조사구역 : 테헤란을 22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 조사직원의 이동 및 조사상황을 GPS를 이용하여 추적함으로써 현장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조사자료전송 : 조사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전송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직접 전송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센타로 전송하지는 않음

* 이란에서는 Coffee net이 일종의 피시방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를 이용해 자료전송이 이루어지기도 함

□ 결과 및 성과

- 예산절감이라는 어려운 환경하에서 PDA를 이용한 조사방식은 통계조사의 정확성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주로 비표본오차의 감소에 주 목적이 있음
- 자료수집에 IT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자료의 검증 및 수정이 가능
- 현장조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4. 통계 연구 및 교육센타(SRTC)* 현황

* 통계센타(SCI) 부설기관으로 1999년에 설립

□ 설립목적

- 통계와 정보의 생산과 보급과정에 있어서 품질제고
- 통계의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의 가정 적절한 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 해결
- 통계적 이슈에 있어서의 국가연구역량의 강화
- 연구활동의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 기능

- 통계분야에 있어서 연구 및 연구우선순위의 결정
- 통계생산, 통계분석, 통계자료처리 및 배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행
- 통계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등과의 협력증진
- 국내외 학술 및 연구조직과의 교류
- 학술 및 연구 세미나등의 개최 및 자료발간

□ 조직

- **이사회(Board of Trustees)**
 - MPO 장관(위원장), 과학·연구·기술관련 부처장관 혹은 대표자, 이란 통계센타장, 학계(2명), SRTC의 장(간사)
- **센타장(The Head)**
- **연구위원회(The Research Council)**
 - SRTC의 장(위원장), 연구그룹 책임자, 센타차장(Research deputy), 학계(5명이하)관련 인사들로 구성
- **4개의 연구그룹**
 - ① **경제통계연구그룹(Economic Statistics Research Group)**

【주요기능】

- 경제분야에 있어 제기되는 주요 연구과제의 수행
-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분야에 있어서의 자료추정을 위한 경제모델의 연구 및 제공

- 불변가격지수 작성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연구
- 국민계정 등과 관련된 국제권고에 대한 연구

【최근의 연구실적】

- 이란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대한 측정방법
- 빈곤지수의 측정(1984~2000년)
- 시간활용조사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여성노동시장과 노동시장 참가율에 대한 비교연구
- 헤도닉 기법을 이용한 물가지수의 조정(PC를 대상)
- 소비자물가지수에 있어서의 측정에라와 영향에 대한 연구
- 불변가격기준 지역생산계정의 작성

② 통계조사방법(Technical Designs and Statistical Methods Research Group) 연구그룹의 주요 연구실적

- 2006년 인구주택센서스에 있어서의 과소추계규모에 대한 추정
- 고용 및 실업률 조사에 있어서의 표본설계에 대한 리뷰
- 전국 및 지역수준의 인구추정 및 추계(1996~2006년)
- 노동력조사에 있어서의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
- 통계조사에 있어서의 소지역추정에 대한 도입검토
- School to work에 대한 조사검토

③ 자료처리 및 배포연구(Data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Research Group) 그룹

【최근의 연구실적】

- 무응답에 대한 대체기법연구 및 데이터분석에의 영향
- 사용자관점에서의 이란 통계센타의 자료배포에 대한 검토
- 통계 메타데이터의 작성과 보급에 대한 기준의 설정

【현재 연구중인 과제들】

- 국가관광통계조사의 설계
- 경제주요부문에 대한 자본스톡 및 고정자본소비의 추정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구조추이의 분석
- 도로수송에 있어서의 연료소비에 대한 추정
-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득격차의 추이에 대한 연구
-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에 있어서의 이상치에 대한 연구
- 통계조사에 있어서의 cut-off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가계 소득 및 지출 조사 DB에 있어서의 데이터마이닝
- 통계조사에 있어서의 PDA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④ 교육훈련(Training Services Group) 그룹의 주요실적

- 장애인 및 건강통계에 대한 첫 번째 지역교육과정
- 가계 및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한 12번째 교육과정 및 워크샵
- 사회 및 문화통계에 있어서의 등록통계의 활용
- 비표본오차 및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 소지역추정
- 표본설계를 위한 SPSS의 활용
- 데이터마이닝
- 인구추계 및 추정 방법론연구
- 통계작성에 있어서의 품질관리
- 단기경제지표

○ 통계사전위원회(Statistical Encyclopedia Council)

- 1996년 2월에 사전편찬작업에 착수하여 발간하였으며, 9권의 본편 및 4권의 부록으로 구성되어있음

Ⅲ. 주요 시사점

- 이란은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810불(86위, IMF 자료)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은 뒤쳐져 있으나,
 -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산업화의 필요성의 대두 등에 따라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통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란 통계센타에서도 통계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통계문맹의 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란의 통계시스템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계청과 각부처들로 구성된 최고통계위원회를 통해 통계시스템의 중단기 계획, 통계우선순위 등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임
 - 또한 이란의 경우 통계연구 및 교육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담당하는 SRTC내의 이사회의 장이 관리계획처 장관일 정도로 격이 상당히 높음
 - SRTC내에는 경제통계, 조사방법, 자료처리 및 배포, 교육훈련과 같은 4개의 연구그룹이 있고 상당히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 우리의 개발원과 교육원을 합친 기관의 성격이지만 연구조직인 개발원의 성격이 강함
 - 통계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물가조사과정에 있어 PDA, GIS, GPS를 통합한 이른바 PGG를 이용한다는 것임
 - 이러한 조사방법이 이란의 통계조사수준을 감안할때 상당히 앞서나가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통계조사의 정확성은 물론 조사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

※ 우리의 경우에도 조사의 정확성제고를 위해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란 통계센타장은 향후에도 우리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한국 대표단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통계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다만, 앞으로의 양국간의 교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할 것으로 생각됨
 - 이를테면 단순히 양국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서로 브리핑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연동표본의 적용효과, 임퓨테이션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 통계개발원과 SRTC간의 연구인력의 교류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회의자료 등도 사전에 서로 공유하여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회의가 보다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필요 있음

참고자료 1. 이란 통계제도관련 질의서

- In the organizational chart of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there are 30 Provincial Offices, could you show us more detail information for that? For instance,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etc. (Is it possible for the workers in SCI to go to the provincial office for interchange of personnel between two organization?)
- As far as I know, the latest statistical law in Iran dates back to 1975, what are the major objectives of statistical law and could you provide the english version if you have?
- In Korea, recently we revised the statistics act and it will be enforced on October 28 in this year. The revised statistics act focuses on the reinforce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the compila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national statistics.
 - the main points of the statistics act revision
 - designating the statistics official responsible for compiling and disseminating statistics in each statistical agency.
 - to enhance the accuracy and timeliness of national statistics, we introduced the diagnosis of quality management on official statistics. Actually,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started in 1999 and there wer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 in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we legislated the system at last.
- The head of the SCI holds the office for an indefinite period, right? could you tell us the process of appointment and average length of tenure.
- KNSO had introduced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n official statistics since 1999 and I mentioned earlier it is now included statistics law. What are the major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statistics in Iran.

- According to the statistics law of Iran, all statistics produced by government agencies except SCI should be approved by SCI, right? then SCI also confirm that the results are scientifically sound before the executive agency takes measures for their dissemination. I think there are so many statistics produced by other agencies and so many statistics to be confirmed by SCI, is there any problem for this kind of process?
- Ministries and government agencies are obliged to provide the SCI with type of data it may require, right? I think information from tax agency is the most important one, do you get that?
- Is there any provision for that in the statistics law?
- The central bank is the one of the member of high council of statistics, then does central bank belong to government?
- The high council of statistics studies national statistical plan to ensure statistical priorities. that means the HCS can make decision to abolish the current statistical survey on the ground of priorities, right?
- If other government agencies violate the regulations in the statistical law, how do SCI manage, what kind of punishment do you have?
- When is advisory council supposed to be open, is there any regular meeting schedule?
- When is expert committee supposed to be open, is there any regular meeting schedule? and what is the role of it?
- Although the SCI is assigned to produce the national account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law, the central bank of Iran produces it, right? Do you have any plan to change this system?
- Do you have a certain kind of system for enhancing the register-based statistics in government agencies? and is it effective?

참고자료 4. 한·이란 양해각서 사본



Terms of reference of the MOU on Statis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istical Centre of Iran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 to the MOU on Statis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istical Centre of Ira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signed in Sep. 21, 2006, the following clauses are agreed on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statistical cooperation:

1. The cooperation framework includes: statistical quality management, statistical metadata, data mining, data confidentiality, ICT application in censuses and sample surveys, state-of-the-art sampling methods, statistical standards, administrative data (Registers) and the role of executive organizations, private sector's contribution to statistical activities, long- and short-term statistical policies, the concept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nd the role of NSOs, organizing and managing the NSO staff and budget,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NSO staff in central office and provincial offices and those in statistical units of other departments; The two parties renew the framework every four years.
2. The two parties support exchange of expert groups and researchers and holding short-term training courses;
3. The two parties accept to come to an agreement on the subject, time and duration, prior to dispatching expert missions/researchers or holding training courses;
4. The R. of Korea's commitments for the first year of cooperation, 2007, includes:
 - a) providing grounds for research activities on electronic statistical surveys,



- b) introducing the Korean statistical system's structure, rules an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facilities to the Iranian mission.
5. The I.R. of Iran's commitments for the first year of cooperation, 2007, includes:
- a) providing grounds for research activities on GIS system,
 - b) introducing the Iranian statistical system's structure, rules an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facilities to the Korean mission.
6. The present MOU, prepared in 2 copies in English and 2 copies in Farsi, all equally valid, is signed in Tehran on 12/04/1386, 2007/07/03.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ature:

**Kim, Dae You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ignature:

**Mohammad Madad
Deputy Vice President,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and
Head, Statistical Center of Iran**

Date:

참고자료 5. 이란관련 사전준비자료

1. Prologue

- 이란은 중동에 위치한다. 15세기 포르투갈이 동방으로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유럽에서 가장 먼 한반도와 중국, 일본 일대를 극동으로 불렀고, 유럽과 극동의 중간에 놓인 지중해의 동해안과 지역의 육지를 유럽과 가깝다고 근동이라 불렀음.
 -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인도의 서쪽에 있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예루살렘-다마스쿠스-카이로-리비아의 벵가지와 트리폴리를 있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동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용어상 근동은 중동으로 대체
 - 중동이라는 용어는 서구인들이 전략적/정치적 기능상의 편리를 위해 지정해 놓은 지역구분에 불과하며, 인도인들과 일부 아시아 사람들은 이 지역(중동)을 서남아시아라고 부름
- 중동은 세계 3 대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이 교차하고,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이 있음.
 - ⇒ 3대륙의 서로 다른 문화의 집합 루트로서의 역할, 문화적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 온 관계로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음.
- 석유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 이해충돌의 장이 되고 있음
- 이란인은 아랍인이 아니다(중동 밖에 기원)
 - 기원전 3,000~2,500년 경 아리안族 一派(인도유럽어족)가 아시아 초원에서 이란고원(남쪽)으로 이주하여 이란 족이 되었음.
 - * 아시아 초원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일파는 게르만족, 슬라브족, 라틴족 등의 원조가 되었음.
 - 이란에는 이란 족(페르시아인) 외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진 다음과 같은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 있음.

- ① Turks : 이란에서 Farsi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종족집단(ethnic group). Iranian Turks의 기원에 대해, 7세기~11세기 경 이란으로 이주/침공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說과, 그들은 원래 이란인인데 침략자들의 점령 기간 중 그들의 언어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說이 있음.
- Iranian Turks는 주로 이란 북서쪽(Azarbaijan, Ardebil 주의 서쪽지역; Tabriz, Urumiyeh, Ardebil 등)에 주로 살고 있으나, Qazvin, Hamedan, 테헤란, Qom, Khorasan 주 등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음.
 - * 'Oghoz'(이란의 Azarbaijan 주와 Republic of Azarbaijan에서 사용되는 Turkish 방언)가 Iranian Turks의 mother tongue이다.
 - 과거 Turkish 여러 왕조('Ghaznavid', 'Seljuk', Safavids', 'Qajars' 등)가 이란을 지배한 적이 있음.
 - 1944년 좌익계 민족주의자들이 소련의 붉은 군대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Azarbaijan지역에서 자치정부를 설립하였는데, 그 정부가 존속한 1년 동안 Turkish를 공식 언어로 채택한 바 있음. 붉은 군대가 이란으로부터 철수하자 1946년 12월 이란군대가 그 자치정부를 압살하였음.
- ② Kurds : Kurds는 주로 Turkey의 남동쪽~이라크의 북동쪽~이란의 북서쪽과 러시아 및 시라아의 일부지역에서 살고 있음.
- 이란 내의 Kurds(족)은 주로 Kurdestan, Kermanshahan, 그리고 Azarbaijan 주 남부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1960년 Safavid 왕(Shah Abbas)에 의해 수많은 Kurds(족)이 Khorasan 주 북쪽(Quchan, Bojnourd)으로 강제 이주되어 오늘날도 그곳에 살고 있음.(66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산)
 - Kurds(족)은 19세기, 그들이 Ottoman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때부터 자치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여 왔음. Iranian Kurds도 1880년 중앙정부에 반항한 적이 있으며, 1946년 Qazi Mohammad가 주동하여 이란의 Kurdestan에서 국가('the People's Republic of Kurdestan', 수도; Mahabad)를 건설하였으나, 같은 해 이란에서 붉은 군대가 철수하자 이란군대가 압살하였음.
 - Iranian Kurds의 대부분은 Sunnis이며, 약 1.5 million으로 추산

③ Baluchis(발루치 족) : 주로 Baluchestan(Kerman 사막~Bam & Beshagard 산맥~Sindh의 남쪽 국경지역~Pakistan Punjab주)에 거주. 그 지역은 이란고원(Iranian plateau)의 남동쪽의 건조한 지역임.

* Baluchestan은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 국경분쟁이 있어 오다가 1959년 협약이 체결되어 분쟁이 종식되었음. 이란에 속하는 Baluchestan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Zabol', 'Chahbahar' 등이 있음.

- 한 번도 중앙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으며, 부족사회 생활하고 있었음. Baluchi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부족이 있고, Sunni파에 속함.

④ Lurs(루르 족) : 주로 Lurestan 주 남서부 산악지역에 살고 있음. 독자적인 언어가 있으나 Kurdish와 유사

⑤ Turkmans : 이란과 Republic of Turkmenistan과의 국경을 이루는 비옥한 평원지역에 거주(Turoman Sahra, Gorgan plains)하며, Turkish언어를 사용.

* 북쪽 Atrak 강~서쪽 Caspian Sea~동쪽 Quchan mountains~남쪽 Gorgan 강

- Iranian Turkmans은 AD 550년부터 이란에서 살았고, AD 750년부터 부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몽골 침략기간 중에도 종족의 일체성을 유지하였음. 이란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족은 'Kuklans'와 'Yamotes'이며, 대부분 Sunni(Hanafi branch of,)며, 약 백만 명으로 추산됨

- Turkmans는 몇 차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적이 있었는데, Pahlavi왕 1세 (1 Pahlavi king; Reza Shah)에 의해 진압 당한바 있음.

⑥ Arabs : 2-3세기(early centuries AD)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이란 Khuzistan(남서부, Shadegan + Ahwaz 등)으로 이주하였으며, 현재에도 그곳에 살고 있음.

- 1980년 이라크 침공 이후 많은 수의 아랍족이 Khuzitan에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현재 이란 거주 아랍족의 숫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이밖에도 많은 소수민족이 있으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란어는 아랍어가 아니다
 - 이란의 공식 국어는 인도유럽(Indo-Europeans)어에 속하는 Persia어(Farsi)이며, 터키어?아랍어?발루치어?쿠르드어 등 소수 언어가 있음.
 - 1986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70%가 Indo-Iranian어(Persia 어, Luri 어, Baluchi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28%는 터키어와 셈어(Arabs, Assyrians 포함)를 사용하고, 나머지 2%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
 - * Persia어는 the Republic of Tajikistan에서도 사용
- 이란은 시아(Shiite) 무슬림 국가이다.
 - 국민의 90%가 시아(Shiite) 무슬림이며, Sunni가 8%. 다양한 인종/언어집단으로 분리된 채 생활(국가통합의 장애)
- Iran의 前 國號는 "Persia"이다.
 - 국호 변경은 1935년 주독일(당시 Nazi 영향 하에 있었음)이란대사가 제안/채택
 - 국호변경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이라크, 요르단 등과 같이 Ottoman 제국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 또는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로 인식 (많은 사람들은 "Iran"이 "Persia"의 새 이름인 줄 모르고, 이라크와 혼동하였음).
 - 석유산업의 국유화 선언 등 국제적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나라 이름이 언론의 headlines를 장식하던 1941년 이후부터 "이란"이 점차 많이 사용되고 "Persia"는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
 - 당시 독일은 'Aryan' 혈통을 가진 나라와의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주독일 대사의 친구들이 이란으로의 국호변경을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 * Persia는 당시의 영국과 러시아 간섭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국호변경을 통해 독일과 가까워지려는 시도로 풀이됨. (이란인은 Aryan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

2. 이란의 문화와 에티켓

□ 이란 문화의 源流

- 유목민(Bedouin)의 도덕적 가치와 이슬람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란인의 思考方式, 行動樣式 등에 큰 영향)
- 베두원의 도덕적 가치 : 의협심 많고, 용감한 자유인, 어떠한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예의를 존중하고 손님을 환대
 - 이란인은 손님에 대한 환대를 행함으로써,
 - 1) 자신의 품격과 위신을 높인다고 생각하며,
 - 2) 잠재적 고객 확보,
 - 3) 분쟁 시 정치적 협력자 확보 등을 위한 목적이 있음.
 - 환대문화는 사막에서 집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은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 생성
 - * 유목민의 환대문화는 오늘날에도 결혼, 장례, 건물완공, 라마단 기간 등 여러 행사를 맞이하여 주인은 주민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변형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
- 이슬람의 가치 : 신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심을 품고 있는 운명론적 사고, 알라신을 공경/감사하며, 금욕·절제·관대한 삶을 영위
 - ※ 복잡/미묘한 상반된 평가
 - 이란인은 온화, 친근, 관대하다.
 - 게으름, 끈기 없고 무책임함, 시간관념 희박, 지연술과 거짓말 잘함

1) 종교; Islam

- 이슬람은 개인의 일상생활, 정치, 경제, 법률 등 모든 부문에 있어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Quran과 Sunnah(Muhammad의 언행에 기초한 회교의 口傳 율법)가 종교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음.

○ 무슬림은 하루 5번(at dawn, noon, afternoon, sunset, and evening) 기도할 의무가 있으며, 기도하는 정확한 시간은 매일 신문에 게재됨.

○ 이슬람교도는 코란이 정한 다섯 가지 신앙지침을 이행하여야 함.

1) 신앙고백(알라 神 외는 신이 없다), 2) 예배, 3) 희사, 4) 순례, 5) 단식

○ 신의 뜻을 받아들이며, 신의 뜻에 불평하지 않는다.

- 이슬람교도들은 1) 임종할 때, 2) 패배했을 때, 3) 災難 중에 “신은 위대하다”라고 신을 예찬한다.

* 인샤라 : ‘신의 뜻이라면’

○ 금요일은 무슬림의 휴일이며, 많은 기업들이 목요일을 쉬어(혹은, 오전 근무)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이 됨.

○ Ramadan(the holy month of fasting) 기간 동안 모든 무슬림은 새벽부터 일몰시간까지 금식해야 하며, 하루 6시간만 일 한다.

- 음식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gum을 씹는 것도 금지된다. 국외 거주자는 금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주요 호텔에서는 항상 식사가 제공됨.

- 매일 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금식이 끝났음(breaking of the fast; iftar)을 찬양.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일상들이 느리게 진행되어, 종종 사업 schedule이 단축되기도 하고 사무실·상점의 개점 시간이 평소보다 늦고, 영업시간 중에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음.

-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유일한 officially 시아(Shi'ite)파 국가 (다른 나라들은 Sunni)

- * 예언자 Mohammad 사후 누가 승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시아는 모하메드 家系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 수니는 이에 반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섞여 있지만, Iran과 Iraq에 시아파의 수가 많다.

2) 여성의 전통 의상; chador(이란어)/hijab(아랍어))

- 코란은 남녀 무슬림 모두에게 간편하고 검소한 의상을 입도록 권장하고, 특히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과 험거운 옷으로 팔과 다리, 목, 귀 부분을 감추는 옷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최근 이런 풍습이 강화되고 있음.
 - 다만, 다음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얼굴 가리개(히잡)를 벗을 수 있음.
 - 1) 예배를 드릴 때,
 - 2) 남편과 친정의 혈족 남성과 있을 때
- 히잡을 쓰는 전통은 이슬람 이전 시대 아라비아에 만연하였던 부도덕한 상황들에 대한 부차적 예방책이었으며, 시골 보다는 도시의 관습이었음.
 - 도시의 부유한 상인계층 등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표시로 이 관습을 채택하였다고 함.
- * 중동의 일부지역 노동자, 농민 계층의 여성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히잡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서구화를 지향하였던 Reza Shah Pahlavi가 1930년대 여성의 베일 착용을 금지시켰으나,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히잡 쓰기 운동이 전개되다가, 1981년 히잡을 강제 착용토록 법제화하였음.
- * 12세 이상 여성은 무슬림에 상관없이 히잡을 착용하여야 함

3) 인사

- 코란에는 가능한 성의를 다해 보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음 ('그대가 인사를 받을 때 더 나은 말로 답하거나 그와 같은 말로 답하라').

-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로는 ‘as-salam alaykum(앗 살람 알라이쿰)’인데,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이라는 뜻.
- 인사순서에 있어, 서 있는 자가 앉아 있는 자에게, 방문자가 집 주인에게 먼저 한다. 젊은이가 어른에게 먼저 하며, 교통수단을 타고 있는 자가 걷고 있는 자에게 먼저 한다. 한쪽이 여성인 경우 남자가 먼저 인사할 수 있지만 여성은 꼭 답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히 답해도 무방함.
-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신은 더욱 관대 하십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등 신의 이름으로 하는 인사가 무수히 많다. 삶은 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定命論的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
- Taarof는 대화를 하는데 있어 이란인의 예절을 말함.
 - 이란인들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기를 부담스러워 하며, 대중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하게 말한다. Taarof에 충실 한다면, tea나 사탕을 권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강하게 권할 때까지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하여야 하며, 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의례적인 거절(No)과 참 뜻의 거절을 분별하기 힘들다).
 - * 반대로, 주인의 권유는 거의 의례적인 것이므로 먹고 싶지 않으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4) 방문 예절

- 이란인의 가정을 처음 방문할 경우, 작은 선물(꽃, 과자 등)을 가져가는 것이 관습
- 이란인의 집에 초대되었을 경우, 집안에서 주인이 신발을 신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고 있지 않으면 입구에서 신발을 벗는다).
- 복장(옷)은 수수하게입는 것이 좋으며, 약속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이 좋다.
- 이란인의 집을 방문하는 자는 주인에게 성(surname)과 직위 등을 알려야 하며, 집안 어른에게 먼저 인사를 하여 존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 주인은 보통

방문객을 환대한다.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관습이며, 손님은 이러한 환대를 받아들여야 함.

- 초대를 받을 때에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수적인 이란인들은 이성을 함께 초대하지 않는다. Guests' room으로 안내되는데 보통 값비싼 유럽식(산) 가구 등으로 꾸며져 있다(부유층).
- 모든 사람과 각각 악수를 한다.
- 형식적인 인사가 끝날 때까지 정식 용건을 입 밖에 내서는 안된다.
- 앉을 자리를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 보통 가정에서는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식탁에는 spoon과 fork가 놓여있다. 오른 손으로만 식사를 한다.
 - * 일부에서는 마룻바닥에 앉아 without eating utensils로 식사를 하기도 한다.
- 음식이 다 serving되고 난 뒤 식사를 한다. 일반적으로 식사는 큰 그릇에 담아와 각자 그릇에 덜어 먹을 수 있게 서빙 된다(family-style).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제공되며, 이것을 손님에 대한 환대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두세 번 정도 제공된다.
 - * 초대된 이란인이 음식을 처음 사양할 때 예절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된다
- 식사를 마칠 때는 접시에 약간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절이다.

5) 식생활

- 쌀(rice)이 주식(staple food)이며, 색조 등을 넣어 화려하고 다양하게 요리. 쌀로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활동량이 적은 여성들에게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Chelo khoresh : 쌀 밥 위에 야채와 고기 얹고 nut sauce를 곁들인 요리

- Polo sabzi : 신선한 약초를 넣고 요리한 pilau rice
- Polo chirin : saffron으로 색을 들이고, 건포도 아몬드, 오렌지를 곁들인 요리
(새콤달콤한 맛)
- (구운)빵을 많이 먹는다. 이동 중에도 먹을 수 있고, 보관도 용이 (유목민들에게 간편한 음식)
- 육식(양, 닭, 낙타)을 즐긴다. 돼지고기는 불길하다고 먹지 않는다.
 - 물이 귀하기 때문에 탕보다는 주로 불에 구워서 먹는다.
 - * 케밥(터키어) : 양고기를 조그만 크기로 잘라 주로 소금과 후춧가루로 양념해 구운 것(카밥(아랍어), 카법(이란어))
- 치즈와 요구르트(사육동물의 젖을 가공한 것으로, 시큼한 맛이 강함)를 많이 먹는다. 서민은 빵과 요구르트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 19C 영국으로부터 茶문화가 들어온 이후 차를 많이 마신다(이전에는 커피를 많이 마셨다) 한 번에 보통 2~3잔을 마시며, 맛은 홍차와 비슷하지만, 끓이는 시간과 첨가하는 향신료에 따라 맛이 다양.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식사 후에는 물론 일과 중에도 자주 마신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우선 차를 대접, 손님이 차를 기쁘게 양껏 마셔야 하는 것이 예절로 되어 있음.
 - * Mineral waters, 과일 및 야채 juices도 즐김. 음주는 엄격히 금지
- 대부분의 이란인은 spoon과 fork로 식사를 하나, 방문자는 서양요리를 주문(선택)할 수 있고, fork와 knife로 식사를 하여도 무방함.

6) 가족(family value)

- 이란인은 가족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책임을 다 하고자 함. 여성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항상 보호 받는다. 이란인의 아내나 여성 친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
- 최근 자녀를 한명 또는 두 명 두는 경향을 보이지만 먼 친척까지도 매우 가까이 지낸다.

- 가족 일에 대해서는 외부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
- 각 개인은 필요시 자신의 social network와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가정에서 노인들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가족은 사업 등 사회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함. 친척을 소개하거나 채용하는 일 (nepotism)은 善(good thing)으로 간주
- * 사람을 고용할 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7) 두 가지 상반된 identities; public(zaher)과 private(batin)

- 이란인들은 자신들에게 분명한 양면의 identities, 즉 public(zaher)과 private(batin)가 있다고 생각함(公席과 私席에서의 행동 모순).
 - 그들이 공공의 입장(in public)에 있을 때는 사회의 행동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이나 친척, 친구 등 'inner circle'에 속해 있을 때는 편안한 감을 가진다(그렇지 않다).
 - 'inner circle'은 한 개인의 사회생활과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토대가 된다. 'inner circle'에 속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형식적 절차 같은 것이 배척된다.
-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고 걱정하는 것은 '죄 의식' 때문이 아니라, '남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하는 점에 있다.
 - 아무도 모른다면,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용인되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해방된다.

8) 회의 및 비즈니스 에티켓

- 인사/소개는 보통 동성 간에만 한다(남녀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 인사는 매우 다정한 방법으로 한다. 각종 행사에서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볼에 키스를 하며, 길거리에서 만날 때는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 인사가 끝나면, 마음을 편히 하며, 일반적 사항(general things, not private)에 대해 대화한다.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은 'salaam alaykum' 또는 더욱 단순하게 salaam(peace)이라고 한다.
- 이란인들은 평소 잘 알고, 존경하는 사람과 거래하기를 선호한다.
 - Business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가 무엇을 아느냐 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contact point와 network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란인과 외국인이 거래 partners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거래에 있어 개인관계가 중요하다)
-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차를 대접하며 이는 환대의 표시로 생각한다. 이란인은 외양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고급호텔에 투숙한다.
- 국가 간 business를 위한 약속은 4~6주 전에 하여야 하며, 1주 전에 conform 한다. Ramadan 기간 동안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단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님을 환대할 수 없기 때문).
- 미팅은 자주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문서는 Farsi와 영어 2개 언어로 쓰는 것이 좋다.
- 양해를 얻지 않고서는 상의를 벗지 않는 것이 좋다.
- 미팅 중 시계를 쳐다보거나 회의를 서둘지 마라. 그럴 경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란인은 협상에 능숙하며 결정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들을 너무 압박하면 그들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거래 중단을 위협하며 회의장을 나가 버리는 방법으로 반발)할 것임.
- 이란인은(특히, 상대방의 deadline을 알고 있다면) 협상술의 하나로 종종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란인)이 (나에게) deadline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가지며 최상의 한사람 또는 소수 인원이 결정을 한다. Businessmen의 복장은 진한 색의 정장이 좋다. 이란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지만, 상대방은 매더라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옷을 잘 차려 입는 것이 중요하다.

- 이란인과 말을 할 때, 직명과 성을 부르면 된다. 'doctor'나 'engineer' (mohandis) 등은 공식직명보다 선행한다.
 - 남자를 부를 때는 "agha"(sir)라고 하며, 이름 앞에 또는 뒤에 불러도 된다. "agha-yeh"는 성 앞에 부른다.
 - 여자를 부를 때는 "Khanoom"(madam)이라고 하며 이름 앞에 또는 뒤에 불러도 된다. "Khanoom-eh"는 성 앞에 부른다.
-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은 이름을 부른다.(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친해져야 한다).
- 명함은 간부급 사람들만 사용(하급자는 명함이 없다). 계급과 직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란인에게 건네 줄 자기 명함에 직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명함의 다른 한 면에는 이란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명함을 줄 때는 Farsi로 표기된 쪽(면)이 받는 사람에게 보이도록 주는 것이 좋다.

9) 선물 예절

- 이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 왔을 때, 승진, 사업성공 등, 각종 event를 기념하여 선물을 한다. 생일날 회사원 등은 케이크(sweets & cakes)를 회사 사무실로 가져오며, 동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 Noruz(Iranian New Year)날, 부하직원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선물로 주는 것이 보통이다. 돈은 새 돈이거나 금화이어야 함.
- 이란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꽃이나 과자(pastry)를 선물로 가져가며, 선물을 건넬 때는 항상 약소하다고 말해야 한다
- 선물은 건사하게 포장해야 하며, 대부분의 상점에는 포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 선물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바로 개봉하지 않고, table 위에 올려놓고 선물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10) 기타 사회관습

- 일부 국가(미국, 영국 등)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므로, 방문객들은 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Shah 몰락 이후 이란에서 서구의 생활양식은 배척당하고, Qoranic law이 생활양식이 지배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과 위성 channel을 통해 특히 젊은 층은 서구 문화에 젖어 들고 있음.
- 악수는 사회관습이나, 이성간 악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슬림이 아닌 남성이 무슬림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intimate relations)은 불법이며, 감옥에 갈 수도 있음.
- 대형 호텔에서는 bill에 10%~15%의 봉사료가 추가된다. restaurants에서는 대개 작은 돈을 식탁에 놓고 나온다. 찻집이나 작은 호텔에서는 tip을 줄 필요가 없음.
 - 식당에는 보통 여성과 가족들이 식사하는 'family section'과 남자들만의 'men only section'이 있다.
- (가격 등을) 흥정하는 풍습이 있음.
 - * 상점의 개점 시간 : 일반적으로 09:00~13:00, 15:00~20:00
- 점심시간은 1:00 - 3:00 p.m., 저녁은 종종 9:00 p.m. 이후 먹는다. 식사는 천천히 하여 식사시간이 길다
- 하품을 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하며, 하품을 했을 때 진지하게 '신의 용서를 빕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 * 하품을 할 때 악마가 입 속에 침을 뱉거나 방뇨한다고 생각하는 미신을 믿음
- Calendar
 - Gregorian calender와 다른 고유의 이란 歷(헤지라 역)을 사용

- 1년 12월 중 처음 6개월은 31일, 다음 5개월은 30일, 마지막 1개월은 29일로 되어 있음(윤년에는 30일).

- 이란 역에 있어 처음 2개 월(3월과 4월)에 휴일이 집중되어 있다.

○ Yalda

- 이란인은 연중 밤이 가장 긴 날, 12월 21일을 빛의 천사(the angel of light)인 "Mithra"가 출생한 날을 기념한다.

* Yalda는 시리아 어(Syriac word)로 출산을 의미

- 이날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놀이를 하며, 건과와 candies를 먹는다. 이날 주로 먹는 과일은 'sweet melon', 'water melon', 'grapes', 'pomegranates'임.

- 또 다른 전통은 이날 밤 'Hafez' 詩를 낭송한다.

3. Epilogue

○ 이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인에 대한 先入觀을 버리고, 이란(중동)의 독특한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 국제관계에 있어 이란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자만심을 치켜 세워주고, 칭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 여러 사람 앞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과의 이야기를 피하는 등 금기사항에 유념하고, 이란인이 분노를 사게 되는 미묘한 문제(외국에 의한 아랍 지배,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이 현명

○ 이란문화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 노력과 동시에, 이란인에게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문화(시간 및 약속 준수 등)에 대해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이란정부의 이슬람 문화, 가치에 대한 과도한 보호 노력(외국인에 대한 히잡 착용 강제 등)은 외국인에게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음(상대 문화의 이해와 존중, 관용 필요)

- 이란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 등이 혼재되어, 불안요소가 잠재(반란의 역사가 있음)
- * 특히, 청소년은 서방문화에 친숙해 있으며,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화될 경우 집단갈등의 가능성도 있음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각 지방을 순시하는 것도 정권안보에 큰 목적이 있음)

◇ 이란 생활정보 ◇

I. 개 관

- 국명 이란회교공화국(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기후 대륙성 기후(4계절), 남부는 아열대성
- 면적 165만 km² (한반도의 7.5배)
- 인구 6,700여 만명
- 수도 : 테헤란 (약 1천 2백만명)
- 주요도시 :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 인종 : 페르시아족(51%), 아제르바이잔족(24%), 길락-마란다란족(8%), 쿠르드족(7%), 아랍족(3%) 등
- 언어 : 이란어(Farsi)
- 종교 : 회교(시아파)
- 교육 : 의무교육 8년
- 국경일 : 2. 11(회교혁명기념일)
- 정부형태 : 회교공화국(최고지도자 중심제)
- 최고지도자 :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 대 통 령 : Mahmoud Ahmadinezhad (제9대 대통령, 2005.8.3취임)
- 의회 : 단원제(290석, 임기 4년)
- 영해 : 12마일
- 국방 : 정규군 40만명, 혁명군 20만
- 화폐단위 : 리알(Rial), 1\$당 약 8,900 리알(2005.8)
- 회계연도 : 매년 3. 21부터 익년 3. 20까지
- 주요자원 : 석유(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2위)

II. 도착 전 준비사항

1. 사증 및 노동허가

- 사증 면제 협정 여부
 -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 사전 취득 필요
 -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소지자는 체류기간 3개월 이내에는 사증 불필요

- 주한이란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26
 - 전화 : 02)793-7751
 - Fax : 02)795-5126

2. 기후 및 의복

-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있으므로 4계절의 의복이 필요함.
 - 한국에서 입던 의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됨.
 - *겨울에는 눈도 내리나 한국과 같은 혹한은 아니며, 여름은 고온 건조한 편임
- 현지 생산 의복과 수입품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지생산 제품의 품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나 가격은 싼 편이며 수입품은 고가임.
- 가능한 모든 의류(속옷에서 코트까지)는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란 입국 시 여성은 반드시 스카프 및 긴 코트를 입어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복장에 각별 유의해야 함.

3. 식품류 및 일반용품

- 대부분의 일반 식품은 현지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나, 한국음식 재료인 된장,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등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구입, 사용해야 함.
 - 회교 율법상 음주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류 반입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구속 또는 추방 등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
-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의 쇼핑센터는 없음. 그러나 전자제품, 가구, 생활용품 상점이 산재되어 있어 상당수의 일반용품 구입은 가능함.

III. 은행 구좌 및 카드사용 여부

- 대부분 바레인 또는 두바이에 외환구좌를 개설하고 있음
- 이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이 불가함.

IV. 기타사항

- 교통수단 : 버스, 시영택시, 기차, 콜택시, 비행기
 - 콜택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음.

- 통신 및 전화제도
 - 전화(공중전화 포함, 기계식 시스템), FAX, 장거리전화 DDD
 - *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는 불가능

- 우편제도
 - 소포, 항공우편, 선박우편, 등기, DHL, 속달우편 등

- 면세점 : 없음.

- 백화점 및 기타 상점
 -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터는 없으나 전자제품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구상점 역시 밀집되어 있어 구입 용이

<주요 관광지>

- 카스피해 연안 - 이란에서 휴양지로는 첫 번째로 손꼽히는 곳. 테헤란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 600km의 해변따라 포장도로가 곧게 뻗어 있음. 밀림지역이 많고 습하여 한국날씨와 흡사한 해변 주변에는 민박업소, 빌라들이 많이 늘어져 있으며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음(수상스키, 요트 등). 세계 최상품인 철갑상어의 알(캐비어)이 이곳에서 생산되며, 꿀과 쌀의 생산지로도 유명함. 산 전체가 굴나무라 할 만큼 꿀 재배에 적합한 기후로 어디서나 신선한 꿀을 즐길 수 있음.

- 쉬라즈 - 다리우스왕(522BC-485BC) 집권당시 건립되었던 당대의 최대 건축물이었던 Takht-e-jamshid(Persepolis)궁전이 있는 곳이며,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인 Fars주의 중심도시. 당대의 최고의 시인 '샤아디'와 '허페즈' 시인의 무덤이 있는 곳. 테헤란에서 차량으로 10시간 정도 소요 (약 900km 거리).

- 이스파한 - 압바스왕조때 이란 수도였던 지역. 폴커주(Khaju Bridge), 시오세폴, Ali-ghqpu, 이맘광장, 이맘모스크, 체헬소튼 궁전들이 유명하며, 테헤란에서 5시간 거리(400km)
- 마사드 - 8번째 이맘인 레자가 순교한 곳으로 시아파의 성지. 유적지로는 이맘 레자의 무덤, 문화예술의 유래가 깊은 곳으로 주요 건축물의 양식은 현대까지 연구 응용되고 있음. 이란어인 '화르시' 를 만들어 낸 시인 학자 웨드도시의 묘지가 있음.
- 하메단 - B.C 700년에 건립된 도시로 50km 떨어진곳의 Ali-Sadr 라는 마을에 '동굴' 이 있으며, 도기의 주생산지로도 유명

< 식당 >

- 이란 전통음식 Kabab 식당이 주류이며, 중국, 불란서, 이태리 식당이 있기는 하나, 모두 현지인이 운용하여 수준 이하임. (한식당은 없음)

< 호텔 >

- 현지 호텔 현황
 - A급 호텔 : 4개 (AZADI, ESTEGHLAL, LALEH, HOMA)
 - B급 호텔 : 10개정도
- 등급별 숙박료(싱글룸)
 - A급 호텔 : \$ 150
 - B급 호텔 : \$ 100
- 예약 등 기타사항
 - 1주일 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Charge 15%

< 기타 >

1. 한국과의 시차 : 5시간 30분 차이(한국이 빠름)

예) 이란 00:00 한국 05:30

- 섬머타임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4시간 30분 차이

2. 환전

- 은행을 이용하는 공식 환전방식(1\$=R.9,000 2005.8.17 현재)

3.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 08-15시
- 우체국 : 08-12시
- 박물관 : 08-12시, 14-17시
- * 휴무일 : 금요일, 혁명기념일, 신년(노르쥬), 5명의 이맘순교일 및 탄신일, 호메이니 사망일 등

4. TIP 제도

- 고급식당, 호텔 등지에서는 15% 서비스 Charge가 함께 포함 청구되므로 필요 없으나, 일반식당 등지에서는 책정된 Service Charge가 없어 경우에 따라 적당히 지급(보통 10%)

참고자료 6. 명함, 사진 등 잡동사니

□ 한·이란 통계협력회의 선물리스트

| | 품목 | 수량 |
|-------|--------|----|
| 통계센타장 | 한국의 종 | 1 |
| | 넥타이 핀 | 1 |
| 관련인사 | 넥타이핀 | 10 |
| | 여성 스카프 | 5 |

※ 청사1층 조달전시관에서 구입